

‘선거제 개혁’ 대치...12월 임시국회 불투명

민주 “4당 논의 시작하자”

단식·시위 야3당은 시큰둥

여야 12월 임시국회 신경전

선거제 개혁을 놓고 형성된 거대 양당과 야 3당 간 대치 전선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야당 달래기 용’으로 ‘내년 1월 합의·2월 임시국회 처리’ 카드를 제시했으나 야 3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았다. 13일엔 한국당을 제외한 4당간 논의까지 제안하며 야 3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를 다음 주 초부터라

도 연말까지 열어서 여러 가지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여러 민생 입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을 향해 “한국당과 합의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만약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 등에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과 야 3당 농성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이날도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 야 3당은 전날부터 합동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은 8일 차로 접어들었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정치개혁 등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어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피켓시위에서 손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단식농성에서)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불분명한 수사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한다”며 “주말 넘어가기 전에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은 왜 자신에게만 압박하느냐고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면서 “한국당 핑계대만 내지 말고 집권당으로서 한국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

농성장을 찾아 야 3당 달래기에 주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한국당 뺀 여야 4당 선(先) 합의”를 다시 제안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선거제 정국의 여야 대립 속에 1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12월 임시국회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각 당의 셈법이 달라 합의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음 주에 임시국회를 열려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여야 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선거제 정국의 대립과 한국당 원내지도부 교체 등으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이 최근 열리지 못하는 점도 연말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민생행보 시동...이해찬 행복주택 찾아

8일 일정 ‘정책투어’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8일간 이어질 민생행보의 명칭을 ‘정책투어’로 지었다. ‘정책(聽察)’은 경청과 정책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말로, 국민에게서 들은 바를 정책과 법안에 고스란히 녹여내겠다는 뜻이다.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통과로 12월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를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내년도 정책 개발을 위한 민심 청취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첫 정책투어에는 이해찬 대표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오후 서울 강동구 강일 행복주택을 방문해 정부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이 대표는 청년·신혼부부와 한 시간가량 간담회를 하고 이들이 현장에 느끼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경청했다. 아울러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여당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이 이끄는 정책투어 자영업팀도 이날 서울 마포구의 대형 재래시장인 망원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손님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책투어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7명의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연 정책위의장 등을 책임 의원으로 하는 10개 팀으로 운영된다. 10개 팀은 이날부터 8일간 팀별로 고유지역 지역, 미해결 재난 피해 지역, 정책 수혜 지역 등을 동시·발로 찾아 간담회 등을 연다. 이어 오는 21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팀별로 축적한 성과를 정리해 보고하기로 했다. 당은 정책투어 활동을 당 유튜브 채널인 ‘썸’에도 올릴 일반 당원은 물론 국민들 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정책투어에서 보고된 주요 민생현안과 관련해서는 이후 당정협의회를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 내년 국정 운영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맹성규, 정춘숙, 박경미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남인순 위원장, 신경민,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7일간 알제리 등 3개국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16일부터 7일 동안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한다. 국무총리가 알제리(16~18일), 튀니지(18~20일), 모로코(20~22일) 등 아프리카 북서부를 통칭하는 ‘마그레브’(아랍어로 해가 지는 곳) 지역을 단독 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제리-튀니지의 경우, 한국 총리 방문 자체가 처음이다. 이 총리 일행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다.

이 총리는 16-18일 알제리를 방문, 우야히야 모로코 총리 및 벤 살라상원의장

과 회담한다. 또 한-알제리 비즈니스 포럼 등 간담회에 참석하고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복합 화력발전소 현장도 시찰할 예정이다. 이어 18일부터 사흘 동안 튀니지를 방문, 간섭시 대통령 예방과 사제 드 총리와 회담, 엔나프르 국회의장 면담 등을 소화한다. 이 총리는 20일부터 사흘간 모로코를 찾는다. 엘 오트마니 총리와 회담 및 상하원 의장과 면담 등을 진행하고 모로코가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정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

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 개편안 내놔야” 천정배 “한국당 빼고 촛불입법연대 구성하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제 한국당이 응답할 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결단을 끌어내서 단식농성을 해제할 수 있게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과 로

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통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고,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게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손 대표, 이 대표의 단식이 8일째로 다음 주까지 단식이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선거제 개혁의 대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두 대표가 국회에서 실려 나가면 국회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과 논의를 거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가지 토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당이 힘을 합쳐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이른바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년 전 촛불국민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의 열망은 지금껏 법제화되는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혁입법

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흑역 입법이 된다 해도 ‘속된 강장’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 있는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에 의해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라며 “이렇게 하면 한국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회법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난 6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

국회 찾은 홍남기 “최저임금·52시간 근로 보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신을 찾은 홍 부총리에게 여러 분야에서 경험 이 많다고 평하고는 특히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정책을) 하시기에 경험을 잘 살려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경제가 참 안 좋고 어려워 어깨가 무겁다고.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면 되고, 무엇보다 자율성을 더 크게 가지고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너무 성장을 경시했는데, 이제는 성장을 생각

해볼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농성 중인 천막 당사에서 홍 부총리를 만나 “지방에 가나 식당에 가나 어디든 다 죽겠다는 소리를 한다. 부총리가 현실을 잘 안다는 신호만 줘도 상당히 안정감이 생기고 기대가 생길 것”이라며 “포용국가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기초는 그대로 가되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할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여당과는 당정 협의를 많이 하고, 야당에도 정기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본 투시는 고가의 아파트를 단지 내에 제작하였으며, 실거래 다수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웃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정문, 모아엘가 푸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